

믿었던 송은범 연속 5안타 맞고 '와르르'

KIA, 삼성에 4-5 역전패 ... 5연패 수렁 4위 추락



‘호랑이 군단’이 ‘사자 군단’에 달미를 잡았다.

KIA 타이거즈가 12일 포항 구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윤석민과 송은범을 투입하고도 3점차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며 4-5 역전패를 당했다. 지난 7일 롯데전부터 시작된 KIA의 연패는 5까지 늘어났다. 순위는 1주일만에 1위에서 4위까지 하락했다.

3점차로 앞선 8회 1사에서 윤석민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송은범이 5타자 연속 안타를 허용하면서 4-5로 경기의 패전투수가 됐다.

10·11일 잠원삼과-윤성환의 공략에 실패하면서 단 1점을 짜내는데 그쳤던 KIA가 12일에도 3회까지 삼자범퇴로 물러나며 어려운 경기를 했다. 선취점도 역시 삼성의 몫이었다.

1회 삼성 배영섭의 선두타자 안타에 이어 도루로 1사 2루, 이승엽의 좌전안타가 나오면서 선취점을 내렸다.

4회 이용규가 역전의 시작점이 됐다. 1회 첫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던 이용규가 4회 맨발힐크의 초구를 공략해 KIA의 첫 안타를 만들었다. 김선빈의 2루타가 이어지면서 1-1.

신종길의 번트에 이어 나지완의 몸에 맞는 볼로 만들어진 1사 1-3루에서는 최희섭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KIA가 2-1 역전에 성공했다.

윤석민이 일찍 마운드에 모습을 드러냈다. 5회 서재응이 첫타자 김상수를 좌



아쉬운 역투

KIA 윤석민이 12일 포항구장에서 열린 삼성과의 경기에서 5회말 1사1루 때 마운드에 올라 정형식을 상대로 투구를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익수 플라이로 잡아냈지만 배영섭에게 중전 안타를 허용했다. 선동열 감독은 선발 서재응을 내리고 5회 1사

부터 윤석민을 마운드에 올렸다.

지난 4일 넥센전 이후 모처럼 모습을 드러낸 윤석민은 정형식과 이승엽을 각각 플라이와 땅볼로 잡아내며 5회를 끝냈다. 6·7회에는 3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며 삼성 타선을 잠재웠다.

윤석민이 마운드를 지키는 동안 7회 KIA 타선이 추가점을 뽑는데 성공했다. 최희섭이 볼넷으로 걸어나간 뒤 김원섭의 타구가 중견수 키를 넘기면서 1사 1-3루, 차일목이 2타점 적시타를 때려내며 4-1을 만들었다.

윤석민을 앞세워 연패를 끊는 것 같았지만 8회 투수 교체가 대실패로 끝났다.

윤석민이 정형식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지만 이승엽의 안타가 나오면서 불펜이 다시 가동됐다.

선 감독이 이적생 송은범을 빠르게 투입했지만 2사에서 연속 5개의 안타를 얻어맞으면서 순식간에 점수는 4-5가 됐다.

무기력하게 역전을 지켜본 KIA는 9회 마지막 공격 기회에서는 오승환에게 3개의 헛스윙 삼진을 헌납하면서 5연패의 부진에 빠졌다.

8회초 2사에서 친정팀을 상대로 등판했던 삼성 사이드암 신용운은 유격수 김상수의 호수비 덕에 아웃카운트 하나도 승리투수가 되는 행운을 얻었다.

선동열 감독은 타선 점화 실패로 사용하지 못했던 윤석민·송은범이라는 불펜의 필승 카드를 처음으로 꺼내들었지만, 팀의 연패를 막지 못하면서 친정팀 앞에서 자존심을 구겼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LA 다저스 류현진이 12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역투하고 있다. 류현진은 이날 시즌 4승을 달성했다.

류현진 LA 구했다

마이애미전 6.20닝 1실점 ... 팀 8연패 끊고 4승

‘괴물 좌완’ 류현진(LA 다저스)이 시즌 4승째를 수확하고 팀을 8연패 수렁에서 건져냈다.

류현진은 12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 6.20닝 동안 삼진 3개를 곁들이며 1점만 주고 역투했다. 시즌 4승째를 수확하며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3승 2패)를 제치고 팀 내 최다승 투수로 올라섰다.

마침 이날 경기를 관전한 어머니 박승순 씨의 54번째 생일에 승리를 선물하는 효자 노릇까지 톡톡히 하면서 류현진은 승리도 쌓고 팀 연패도 끊는 등 세 배의 기쁨을 누렸다.

류현진은 이날 홈런 1개 포함 안타 5개를 맞고 볼넷 3개를 허용했다. 구속은 최고 시속 151km까지 찍혔다. 7회 선두 미겔 올리보에게 좌측 스탠드에 맞히는 홈런을 맞고 유일한 점수를 냈다.

지난달 26일 뉴욕 메츠와의 경기에서 7이닝을 던진 다음으로 많은 투구 이닝으로 메이저리그 진출 후 가장 많은 114개(중전 109개)의 공을 던졌다.

탈삼진은 많지 않았지만 류현진은

안정된 제구로 땅볼 타구를 13개(뜬공 3개)나 양산하며 후투의 발판을 마련했다. 평균자책점은 3.71에서 3.40으로 낮아졌다. 탈삼진 숫자는 시즌 51개로 불었다.

주전 포수 A.J. 엘리스와 호흡을 맞춘 류현진은 1회 세 타자를 가볍게 요라하고 산뜻하게 출발했다. 마이애미의 톱타자 아데이니 에차바리아를 3루수 땅볼로 잡은 뒤 후속 두 타자를 땅볼과 뜬공으로 처리했다.

3회 아체바리아에게 중전 안타를 맞았으나 삼진 2개를 속아내며 위기가 없었다.

압권은 4회였다. 선두 플라시도 폴랑코에게 좌익수 키를 넘어가는 2루타를 맞고 류현진은 1사 3루에서 마르셀 오수나와 맞닥뜨렸다.

류현진은 좌구, 커브, 체인지업을 4차례나 파울로 걸어내며 괴물인 오수나에게 148km 직구를 던져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위기관리 능력을 보였다.

그러나 7회 선두 올리보에게 미묘한 체인지업(126km)을 던졌다가 좌월 솔로포를 내줬다. 시즌 5번째 피홈런이다. 류현진은 두 타자를 범타로 잡은 뒤 9번 대타 크리스 폴란에게 우전 안타를 내주고 교체됐다. /연합뉴스

광주일고·순천 효천고 왕중왕전 16강

광주일고와 순천 효천고가 왕중왕전 16강에 진출했다.

광주일고가 11일 창원 마산구장에서 열린 주말리그 왕중왕전 겸 제6회 황금사자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장충고와의 1회전 경기에서 2-0 영봉승을 거뒀다.

장충고 선발 안도원의 후투에 막혀 있던 타선이 4회 집중 3안타로 기선을 잡았다. 톱타자 임도열이 안타로 출루한 뒤 노민석의 좌익수 키 번기는 3루타가 나오면서 1-0. 3번 이호연의 적시타까지 이어지면서 광주일고

가 2점을 뽑는데 성공했다.

광주일고 선발 사이드암 윤중현이 5.20닝을 6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았고, 김정현과 박철우가 완벽계투에 성공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효천고는 앞선 10일 열린 충훈고와의 대회 개막전에서 에이스 차명진을 앞세워 3-0 완봉승을 장식했다.

8회 1사까지 노히트노런을 기록한 효천고 선발 차명진은 9이닝 2안타 4사사구 13탈삼진의 완벽투와 함께 대회 첫 완봉승의 주인공이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2일 함평 다이내스티CC 회원친선골프대회 및 클럽챔피언 대회에 참가한 회원들이 대회에 앞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함평 다이내스티 CC 8대 클럽챔피언에 정고훈씨

개장 9돌 회원의 날

정고훈(51·사진·효 정형외과 원장) 회원이 호남의 대표적인 골프클럽인 함평 다이내스티 CC의 8대 클럽챔피언에 등극했다.

정씨는 ‘사계절 양산지 골프장’ 함평 다이내스티CC가 지난 10~12일 개최한 제8대 클럽챔피언 선발대회에서 3라운드 스트로크 합계 237타(78-80-79)를 쳐 평균 79타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준우승은 합계 239타(81-77-81)를 쳐서 평균 79.7타수를 기록한 이은석(47·제조연) 회원에게 돌아갔다.



함평 다이내스티 CC 개장 9주년을 맞아 치러진 클럽챔피언 선발대회는 제9회 회원 친선골프대회와 함께 치러졌다.

12월 27일 3개 코스에서 신페리오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된 회원친선골프대회에서는 50명 200명의 회원이 참석해 평소와 같고 닭은 기량을 겨뤘다.

우승을 차지한 정고훈 회장은 “운이 많이 따라 주었다”면서 “골프는 운동도 좋지만 사교에 많은 도움이 된다. 또 인내심이 많이 요구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참을성이 많이 길러졌다”며 “함평 다이내스티CC는 운영 시스템이 잘 돼있고, 직원들도 친절해 회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클럽은 세계적 명성의 로널드 프림(Ronald Fream)이 코스를 설계한 자연친화적 골프장으로, 전면 양산다시 시공돼 사계절 라운드가 가능하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신양파크호텔 가정의달페스티벌

가족·스승 동반 이벤트 | 행사기간 2013. 5. 1(수) ▶ 5. 31(금)

행사1 중식당 SET메뉴, 일반식사 4인 이상 드실경우 1인무료
〈특별메뉴〉(대사이즈 주문시(사사이즈 가격 적용 판매) 돼지고기탕수육(大) ₩41,800 → ₩30,800 전가복(大) ₩82,500 → ₩60,500 ※회원 중복 할인 적용 되지 않습니다.

행사2 양식당 스테이크(안심/등심) 4인 이상 드실 경우 1인무료 ※회원 중복 할인 적용 되지 않습니다.

행사3 중식당&양식당 이용고객 경품추첨 (당일 명함 수거 및 번호 배부 추첨) 5월 31일~10월, 15일 스승의 날 17일 석가탄신일, 21일 부부의 날 (점심) 오후 2시, (저녁)오후 8시 추첨 레스토랑 상품권 각 1매

웨딩홀 새단장 기념 신양 웨딩 Special 이벤트!!

7~8월 웨딩 확정시 특별할인가격

₩ 33,000원 ~ 스테이크 38,500원 ~

Membership 신설 신양파크호텔의 품격있는 VIP로 초대합니다

① 휘트니스 Gold 멤버십 (보증금 6개월 : 125만원 1년 : 248만원) ② First Class 포시즌 멤버십 297,000원

Shin Yang Park Hotel
예약 및 문의 062)228-8000/221-4101~3